

6위 확정 광주FC, 전북 원정 첫 승 꼭 해낸다

K리그1 18일 전북 현대와 맞대결
9월 '승리 같은 무승부'로 자신감

K리그2 전남, 수원 원정 경기
PO 진출 위해 승리 각오 다져

광주FC가 전북 원정 첫 승을 목표로 댔다. 광주는 18일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2020 K리그1 2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K리그1에 복귀하자마자 창단 첫 파이널 A까지 이으며 역사적인 2020시즌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앞선 24라운드 대구전 0-1 패로 시즌 최종 순위가 6위로 확정됐다.

5위 목표가 사라졌지만, 광주의 시즌은 여전히 뜨겁다.

다음 시즌을 위한 내부 경쟁이 이미 시작됐고, 강팀들을 상대로 광주의 경쟁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도 확고하다.

A매치 휴식기를 보낸 광주는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만나기 위해 전주로 간다.

국가대표급 선수들로 팀을 꾸린 상대이자 상대 전적에서도 1승 5무 9패로 열세를 보이는 어려운 적이다. 그리고 관중 입장이 재개되면서 전북팬들까지 이번 경기에 참가한다.

하지만 광주는 올 시즌 전북과의 맞대결에서 자신감을 쌓았다.

광주는 시즌 첫 대결이었던 6월 21일 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팽팽한 대결을 벌였다. 전북은 후반 40분 나온 한교원의 골로 어렵게 승리를 가져갔다.

9월 12일 광주전용구장에서 열린 20라운드 홈경기에서는 광주가 승리 같은 무승부를 장식했다. 광주는 엄원상의 멀티골과 수비수 홍준호의 시즌 첫 골 등 세 골을 몰아치면서 전북의 강담을 서늘케 했다. 여름의 자책골과 구스타보의 동점골로 3-3으로 승부는 가리지 못했지만, 광주의 전력을 보여준 무승부였다.

A매치 휴식기가 광주에는 보약이 됐다. 강팀들과의 강행군 속 선수들이 재충전을 마쳤고, 경고누적으로 빠졌던 윌리안도 전북을 흔들 준비를 끝냈다. 엄원상은 올림픽대표팀에 차출되면서 휴식을 취하지는 못했지만, 자신감을 안고 돌아왔다.

펠리페와 홍준호의 공백이 있지만 김주공, 김호기, 한희훈, 이한도, 김태운 등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전북은 마음이 바쁘다. 앞선 라운드 포항전에서 0-1 패를 기록하면서 1위 울산현대와 승점이 3점 차로 벌어졌다. 광주와의 경기가 끝나면 26라운드 울산과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다.

특점에서 울산에 뒤져있는 만큼 울산과 '결승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광주전 승점이 간절하다. 광주는 전북의 이런 부담감을 이용해 '고춧가루 부대'로 활약하겠다는 각오다.

K리그2의 전남드래곤즈는 18일 오후 1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와 24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두 팀 모두 '승리'가 간절하다.

전남드래곤즈(승점 33)는 6위에 머물고 있지만 3위 서울이랜드(승점 34)까지 가시권에 두고 있다. 4강 플레이오프를 놓고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앞선 승리의 분위기를 이어야 한다.

전남은 앞선 충남아산과의 경기에서 전반 6분 터



올림픽대표팀 소집을 통해 자신감을 안고 돌아온 광주FC의 엄원상(오른쪽)이 18일 전북현대전에서 승리의 선봉에 선다. 사진은 지난 9월 12일 전북과의 20라운드 홈경기에서 드리블 하는 엄원상. <광주FC 제공>

진 하승운의 골을 지키면서 세 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또 지난 맞대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하며 힘겨루기도 했다.

수원FC도 선두 수성이라는 목표가 확실하다. 수

원FC는 앞선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면서, 5연승과 함께 1위 자리를 탈환했다.

1위에는 올랐지만 2위 제주유나이티드와 승점이

같은 만큼 불안한 자리다.

두 팀의 결과에 따라서 K리그2 상위권 순위가 요동칠 수 있는 만큼 흥미로운 대결이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7일 경남 통영에서 개막하는 '제56회 대학축구연맹전'에 출전하는 동강대 축구부.

동강대 축구 "이번엔 100% 쏟아붓는다"

17일 개막 대학연맹전 출전
18일 강원세경대와 1차전
U리그 왕중왕전 진출도 도전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17일 경남 통영에서 개막하는 '제56회 대학축구연맹전'에 출전한다.

동강대 축구부(감독 임종우)는 18일 오후 3시 30분 통영 산양스포츠파크 천연구장에서 강원세경대와 조별리그 1차전을 갖는다.

이번 대회는 전국 72개 대학팀이 18개 조로 나뉘어 예선을 치른다.

동강대는 20일 전주대와 2차전에 이어 22일에는 지난해 우승팀 성균관대와 조별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동강대 축구부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020 U리그(University League)'에도 원광대, 호원대, 전남과학대, 조선이공대, 한려대, 군장대, 전주기전대, 동신대 등과 한조에 편성돼 왕중왕전 진출에 도전하고 있다.

임종우 감독은 "지난 7월 시즌 첫 대회인 태백산기 추계연맹전에 아쉬움이 많다. 두 번째 전국 대회에서는 그동안 준비했던 실력을 100%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 운동부(부장 노재성 교수)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P)로부터 3년 연속 재정 지원을 받으며 축구부를 비롯해 야구부의 운영 및 선수들 경기력 향상 등에 힘쓰고 있다. 야구부는 '2021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투수 조정호·김주완(이상 19학번)이 각각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에 지명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정찬성, 타이틀 도전권 놓고 오르테가와 대결

18일 아부다비서 결전

'코리안 좀비' 정찬성(33·코리안좀비MMA)이 브라질인 오르테가(29·미국)를 꺾으면 UFC 페더급 타이틀 도전권을 거머쥔다.

데이나 화이트 UFC 대표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과 인터뷰에서 페더급 챔피언 알렉산더 볼가노프스키의 다음 도전자가 누가 될지는 이번 주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성은 오는 1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아스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UFC 파이팅나이트 180' 메인이벤트에서 오르테가와 격돌한다.

UFC 4위인 정찬성과 2위인 오르테가는 서로를 놀라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타이틀 도전권이 걸렸다.

화이트 대표는 "이 대결의 승자가 타이틀 도전권을 가져간다는 건 분명하다"며 "무엇보다 이 경기는 오라전에 열렸어야 했다. 여기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좀비와 오르테가의 경기 승자는 다

음 타이틀 도전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둘은 지난해 12월 UFC 부산 대회에서 맞대결할 예정이었으나 오르테가가 연습 도중 무릎을 다쳐 대결이 무산됐다.

정찬성은 오르테가의 대체 선수로 나선 프랭키 에드가에게 1라운드 3분 18초 만에 화끈한 TKO 승리를 거뒀다.

그때 이후로 정찬성과 오르테가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걸었다.

둘은 지난 3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UFC 248에 게스트파이터로 참석했다.

당시 오르테가는 자신과 정찬성 사이를 이간질했다며 정찬성의 통역을 맡았던 가수 박재범의 뺨을 때려 물의를 일으켰다.

박재범은 오르테가를 고소하지 않았지만, 정찬성은 "내 얼굴을 피범벅으로 만들겠다"며 오르테가에게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러한 사연까지 더해져 정찬성과 오르테가의



2019년 10월 'UFC 파이팅 나이트 부산' 페더급 매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 정찬성(오른쪽)과 브라이언 오르테가. /연합뉴스

대결은 현재 UFC가 가장 기대하는 매치업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타이틀 도전권까지 약속된 터라 둘은 서로를 꺾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10명 뺀 잉글랜드, 네이션스리그서 덴마크에 0-1 패

퇴장으로 10명이 뺀 잉글랜드가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에서 덴마크에 털림을 잡았다.

잉글랜드는 1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UEFA 네이션스리그 A 조별리그 2차전에서 덴마크에 0-1로 졌다.

헤리 매과이어의 이른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인 잉글랜드는 덴마크에 선제골을 내준 뒤 끝내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이로써 2승 1무 1패가 된 잉글랜드는 조 3위로 내려앉았고, 역시 2승 1무 1패지만 골 득실에서 앞선 덴마크는 2위에 자리했다.

잉글랜드는 전반 31분 매과이어의 퇴장으로 위기를 맞았다.

전반 5분에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매과이어는 카스페르 돌베르에게 깊은 태클을 가해 퇴장 명령을 받고 경기장을 떠났다.

4분 뒤에는 덴마크가 카일 워커의 파울로 페널티 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잉글랜드는 후반 만회를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잉글랜드는 경기 종료 후 제임스까지 레드카드를 받는 악재를 겪었다.

리그 A 조별리그 3조에서는 프랑스가 양투안 그리에즈만의 선제골과 킬리안 음바페의 결승 골에 힘입어 크로아티아를 2-1로 꺾고 조 2위(3승 1무)를 달렸다.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빠진 포르투갈은 스웨덴에 3-0으로 완승했다. 베르나르두 실바가 결승 골을 작성했고 디오구 조타가 멀티 골을 기록해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소리도 없이
2관	소리도 없이
3관	담보, 국제수사
4관	담보
5관	돌맹이
6관	담보
9관	폰조, 나의 이름
7관 씨네커툼	안녕까지 30분, 애프터: 그 후 국장만 요괴워치: 포에버 프렌즈
8관 씨네커툼	안녕까지 30분, 그린랜드 언한지드, 검객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경계의 공간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백건우와 슈만

회관 개관29주년 기념 특별기획
백건우와 슈만
2020. 10. 20.(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라흐마니노프

GAC기획공연 FOCUS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2020. 10.16.(금) 19:30, 17.(토) 17: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